

유충목 Yoo Choongmok (b.1977)

📷 @yoochoongmok

- 학 력** 2013 University of Sunderland 유리전공 석사(수석)졸업, Sunderland, UK
2004 남서울대학교 환경 조형학과(유리) 학사졸업
- 개 인 전** 2024 초대 개인전 (일종의 집 "보현재", 서울)
초대 개인전 (VINS Gallery, 타이페이, 대만)
2023 초대 개인전 (부띠끄 모나코 뮤지엄, 서울)
초대 개인전 (갤러리 아리오소, 울산)
초대 개인전 (갤러리 베누스, 경기)
초대 개인전 (갤러리 애프터눈, 서울)
2022 초대 개인전 (반디트라소, 서울)
초대 개인전 (아트앤에디션, 경기)
초대 개인전 (워커힐 호텔&리조트, 서울)
2021 특별 초대 개인전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 서울)
초대 개인전 (갤러리 마리, 서울)
특별 초대 개인전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 서울)
그 외 다수
- 초대 / 단체전** 2024 "다시, 그리다" 김시현, 유충목 2인전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투영된 시간" 유충목, 이선미 2인전 (맨션나인, 서울)
"所小展" 개관 2주년 기념전 (갤러리 베누스, 경기)
2023 Recollection, Remembrance, 유충목, 조용익 2인전 (브라운 갤러리, 서울)
아이라치, 유충목 2인전 (프린트베이커리 롯데월드타워점, 서울)
Selected marong #3 남상운, 유충목, 최승윤 3인전 (셀렉티드 마롱, 서울)
Motion of silence 유충목, 최승윤 2인전 (프린트베이커리 센텀시티점, 부산)
Peace of mind 유충목, 이경훈 2인전 (아트앤에디션, 경기)
Premiere 남지형, 송재윤, 신예진, 유충목, 전병택 5인전 (아리아 갤러리, 대전)
휴묘, 용산을 밝히다 (갤러리 끼, 서울)
2022 Past, Present and Myself 김시현, 최승윤, 유충목 3인전 (갤러리 라루나, 서울)
그 외 다수
- 경 력** 2019-2023 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
2018 한국장학재단 차세대 육성 멘토-제주 /문화,체육 (제주)
2016 경희대학교 도예학과 출강
2014-2016 한국도자재단 이천세라피아 입주작가 / 유리 (이천)
2012-2013 National Glass Centre, Demonstrator, Commercial designer, Sunderland, UK
2004-2009 Carlson Glass Works, Glass designer & Technician, NY, USA
- 수 상** 2013 Prize of National Glass Center 최우수상 (Sunderland, UK)
2007 NICHE Award Winner of the Professional Blown Glass Category 대상 (PA, USA)
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특선 (청주) 그 외 다수
- 작 품 소 장** 오데마피게 소름(서울), 더블트리 바이 힐튼(서울), 워커힐 호텔&리조트(서울),
한글과컴퓨터(서울),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리조트(서울), 동탄제일병원(경기), 갤러리
박영(경기), 유한양행(서울), 가나아트센터(서울), 프라하 갤러리(프라하, 체코), Global Art
Venue Gallery(시애틀, 미국),
서울 공예 박물관(서울), Pamela Lee Biallas(벨뷰, 미국)
그 외 다수

[Artist's Note]

Formation

“나의 모든 작업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감성적 발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이며 시각적 언어이다.”

10여 년의 타국 생활은 나의 정체성과 자아를 그 어떤 상황보다도 깊이 고민하게 해주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국 또한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급변하는 한국사회는 오히려 나에게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특히 과거 한국미술을 되돌아보고 연구하며 각각의 영감들을 시각적 언어로 해석하게 되었다. 나의 작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청과 오방색을 바탕으로 선과 면을, 입체의 조화와 모든 구도의 기본인 수직, 수평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창호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유리 물방울의 영롱함은 차원의 개념을 잠시 잊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과거와 현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시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물방울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의미한다. 공기 중 수분들이 모여 하나의 개체가 되며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물방울처럼, 나의 모든 경험이 쌓여 진정한 자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